

#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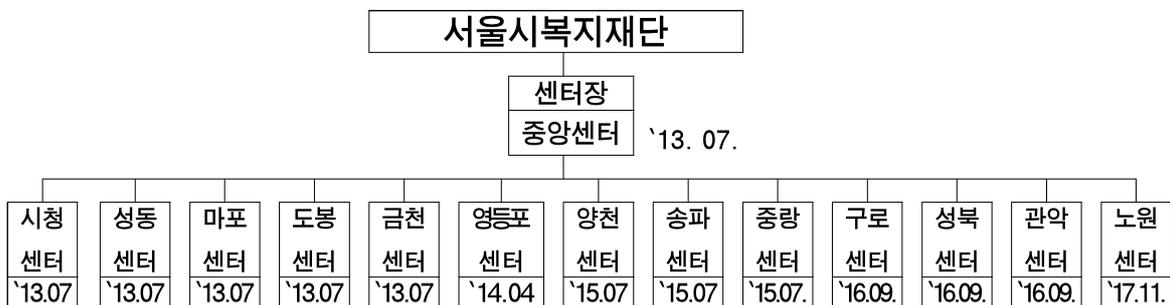
빛으로 위협한 서울시민의 가계부채 확대 사전 예방  
 빛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 제공  
 빛으로 넘어진 금융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

## □ 설립배경

- 가계부채 증대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
  - 가계부채규모가 1,468조 원까지 증가하는 가운데 높은 법률문턱과 생활비·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서민은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
-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회복, 경제민주화의 실현
  - 가정경제 악화는 가족해체, 자존감·자립의지 상실 및 극단적 선택<sup>1)</sup>까지 불러오는 등 헌법 제34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화
  - 빈곤, 경제적 실패를 겪은 시민은 빚의 악순환에 갇혀 경제활동 기회가 점차 축소되고 하층민으로 전락, 국민 경제 불균형을 심화
- 빚을 빚으로 갚게 하는 기존 정책과는 차별화된 금융복지 중심의 공공의 서비스 기관 필요

## □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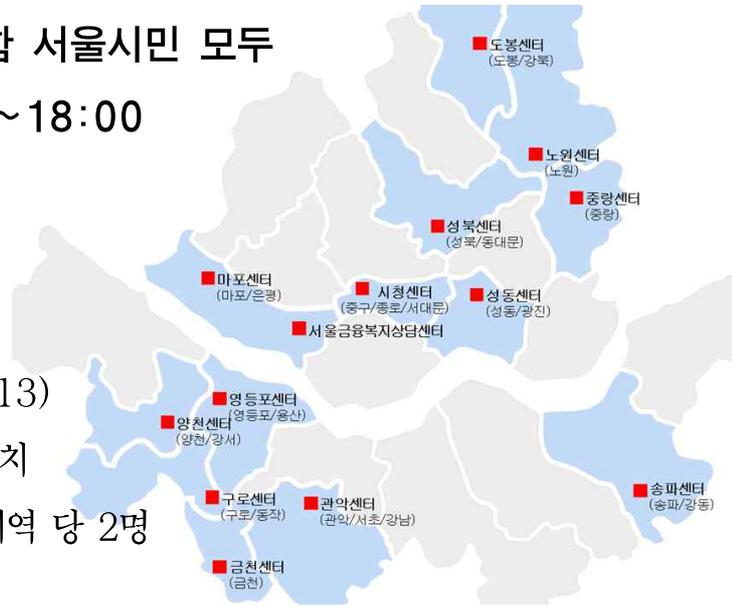
- 조직도(개소시기 포함)



1) 보건복지부는 2016. 기준 자살 사망자가 13,092명,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.6명으로 OECD국가 평균 12.1명에 비하여 2.4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 2018. 04. 18.자 연합뉴스, 자살자 5명 중 1명은 경제문제를 비관하여 극단적 선택 2016. 09. 08.자 노컷뉴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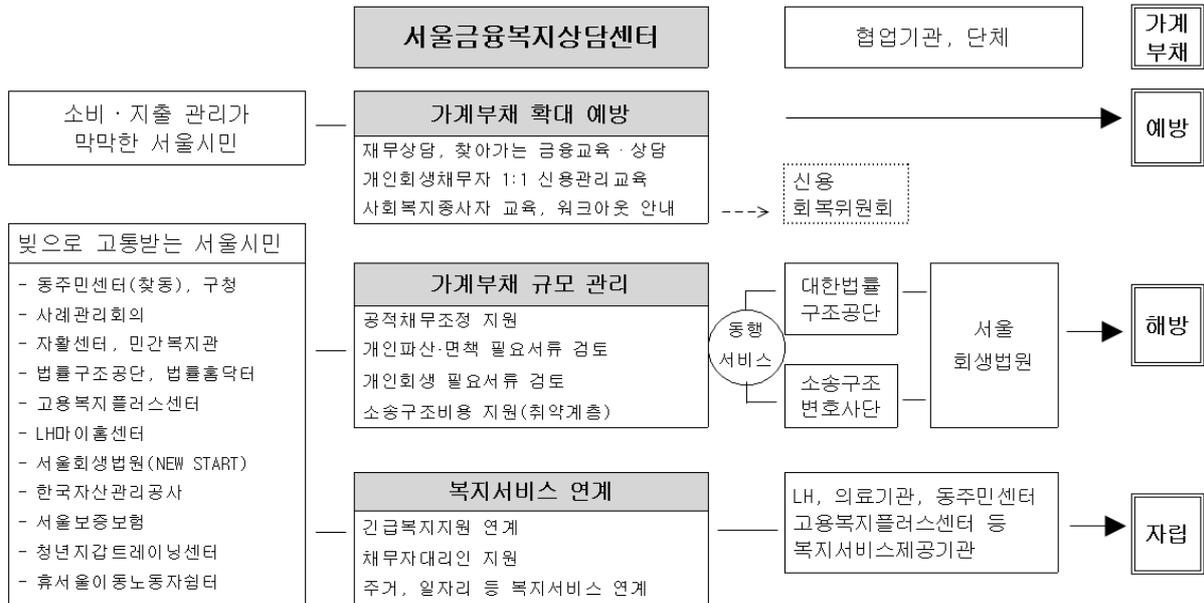
- 사업근거: 서울특별시금융복지상담지원에 관한 조례
- 사업대상: 저소득층 포함 서울시민 모두
- 상담시간: 평일 09:00~18:00
- 일반현황

- 서울시복지재단 직접 운영
- 2013. 07. 6개 센터 개소
- 현재 14개 센터(중앙, 지역 13)
- 9개 구청 등 공공기관 내 배치
- 인력 33명(상담관 28명), 지역 당 2명



## □ 사업내용(추진방법)

### ▶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업무체계



## □ 운영실적('18. 06. 기준)

### ○ 가계부채 확대 예방: 가정경제 악화 사전 예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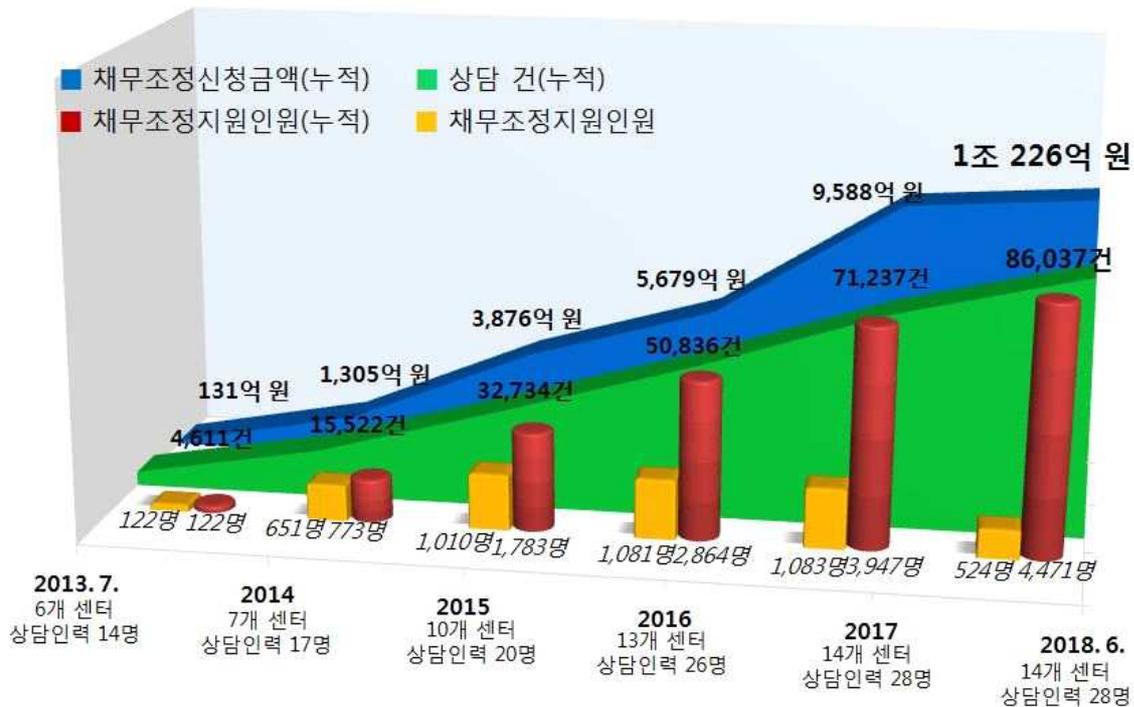
- 개소시점부터 26,780명<sup>2)</sup>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 등 86,037건의 상담솔루션 제공
- 찾아가는 금융상담('18. 106회 / 548명), 찾아가는 금융교육('18. 37회 / 2,478명)

2) 서울시민 22,368명은 개인정보가 담긴 상담신청서 작성 기준 임.

- 개인회생채무자 1: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('18. 3. 개시 / 1,141명 수료)
- 취약계층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종사자, 전공 대학(원)생 교육('18. 2회 / 95명)

○ **가계부채 규모 관리: 가계부채로부터 해방**

- 개소시점부터 수급자, 차상위 등 4,471명 서울시민 가계부채 1조 226억 원 면책
- 서울회생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소송구조변호사(4인) 협조체계 공고화
  - 서울형 Fast Track 운영(센터 경유 신청 사건은 일정 표식을 붙여 법원에서 신속처리)
  -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파산절차비용(관재인선임비) 무상 지원('18. 341명, 5,660만 원)



○ **복지 포함 서비스연계: 빛으로 넘어진 시민의 재출발·자립**

- 개소시점부터 2,615건 서비스 연계
- 금융·재무·법률·복지 역량을 갖춘 금융복지상담관의 융합적 서비스 연계
  - 1회성에 그치는 원스톱행정이 아닌 융합적 역량을 갖춘 상담관들의 동행서비스 행정
  - 공감대(rapport, 라포) 형성에 기한 높은 시민만족, 시청 「칭찬합니다」 게시판('18. 27회)

□ **주요기능 및 정책적 효과**

- 빛을 빛으로 갚는 부채상환 악순환에 따른 빈곤으로부터의 **해방**
- 빈곤·실패의 낙인에서 벗어나 **인간다운 생활 회복 및 경제 활동 복귀**